

스마일산우회

최진숙



매주 목요일 10시 19번 버스 중점 도봉산 끝자락에서 만나 산을 오른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내가 되어 자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우리는 다시 어린 날의 씩스럽고 수줍던 소녀가 되어 즐거운 하루를 만든다.

스마일산우회는 지난 1971년에 창립되었다. 현재 산우회를 이끄는 신예순 회장님(76세)을 비롯해 여성 산악인 5명이 모여 만든 것이 25년 나이를 먹어 지금은 300명이 넘는 큰 산악회가 되었다. 그 회원들은 모두 31개의 조로 나누어져 있다. 1조의 조장을 맡고 있는 전영순(80) 형님은 팔순의 나이지만 산에 오르면 여전히 처녀 같다. 시어머니의 후원으로 인천에서 먼 길을 달려오는 진안자씨는 30대로 우리 산우회의 막내다.

- ◀ 1. 신예순 회장(좌측 앞쪽)을 기준으로 시계바늘 방향
- 2. 임경자 3. 이묘주 4. 전영순 5. 배영자
- 6. 김진주 7. 이희주 8. 우영자 9. 김규옥
- 10. 허근희 11. 송희숙 12. 윤삼분
- 13. 최진숙 14. 이일순

- 스마일산우회는 리라공고의 장학생 50명에게 학비 전액을 후원(한학기 800만원)하는 등 장학사업과 사회사업에도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의 여성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산우회는 사랑과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 매주 목요일 10시면 도봉산을 오른다.

새들의 지저귐 속에 산길을 걷다 보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도 정이 느껴지고 묵묵히 천년을 자리잡고 있는 바위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어느새 우리는 나이를 잊고 10대의 소녀가 된다. 산 냄새를 맡으며 콧노래를 부르다 보면 바위를 오르는 힘겨움도 잊기 마련이다. 금방 출발한 것 같은데 어느새 도봉산 중턱에 자리잡은 용림사터에 다르다. 불길이 지나가는 바위 자락 한 끝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각양각색의 도시락을 펼치면 근사한 한식 뷔페 식당이 된다. 서로 권하며 먹는 점심은 집에서 먹던 그 반찬인데도 이곳에서 먹으면 그 맛이 각별하다. 떠들썩하게 식사를 마치고 잠시 커피 타임을 갖는다. 손자, 며느리, 사위, 딸 자랑에 침이 마르고 아우들은 형님들의 살림 사는 이야기 속에서 세상사는 지혜로움을 배운다.

뻑뻑하던 다리가 좀 풀릴 만하면 회장이 출발을 알린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부터는 각기 능력과 취향에 따라 갈 길을 달리 한다. 회장을 따라 나서는 원로팀 등반대장을 선두로 힘과 기를 뽐내며 산을 오르는 우리 스마일 회원들은 만장봉, 자운봉, 주봉, 오봉, 포대능선, 사패산, 회령계곡 바위와 계곡을 오르고 내리면서 도봉산에 꿈을 심는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은 이 정겨운 도봉산을 떠나 전국의 산을 찾는 '명산 순례'에 나선다. 빼 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해외원정등반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늘 신선한 충격으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한다. 신예순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강인한 체력, 자상한 보살핌으로 이루어지는 원정등반은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된다.

그동안 우리는 대만의 옥산, 동남아 최고봉인 말레이시아의 키나발루, 일본의 북알프스, 다이세쓰야마, 다테야마 등의 정상을 밟은 쾌거를 올



렸다.

특히 지난해는 회장님의 오랜 숙원이던 아프리카의 최고봉인 킬리만자로에 회원 3명이 정상을 정복, 주변을 놀라게 했다. 75세의 나이로 킬리만자로에 오른 회장은 현재까지 등반자 중 최고령자라는 영광을 안았다. 언론 매체

에서 이를 크게 다뤄 우리 스마일산우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매년 2월 우리는 산우회의 예산과 결산을 총 마무리하는 총회를 엠버서더 호텔에서 갖는다.

건강과 노후로 인해 산행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원로들이 대거 참석하시어 후배들과의 만남의 장으로 연결된다.

또 10월 둘째주 목요일이면 우리는 춘천 위도에서 운동회를 갖는다. 달리기, 포크댄스, 공굴리기 등으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신나고 즐거운 하루를 갖는다. 집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산우회만 나오면 말끔히 씻긴다는 회원들이 많다. 서로 속내를 털어놓고 흥허물없이 지내기 때문에 마음병 앓을 일이 없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중년 주부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분들한테는 정말로 산을 권하고 싶다. 우리 회장의 경우도 건강이 좋지 않아 의사의 권유로 등산을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 건강 체질이 되었다.

물론 우리는 등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산을 통해 하나가 된 우리는 사회 사업에도 뜻을 두어 작은 정성을 모아 어려운 처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늘진 곳을 찾아 봉사도 게을리하지 않는 산우회라고 자부한다.

등을 기대고 끌어 주고 당겨 주며 힘을 합쳐 산에 오르는 우리 스마일산우회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모임이다.